

휴살림
HEUKSALIM



휴살림, 2018년 유기농 향해 다시 뚝다

‘휴과 농업과 환경 살린다’ 초심 바탕
농부 · 소비자와 함께 가는 길 모색

‘2018년 무술년, 초심을 되 새기며 다시 뚝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급변하는 대내 외적 환경 탓에 모두가 힘들어 했습니다. 휴살림 또한 녹록치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린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뚝 생각합니다. 그 바탕은 농부와 소비자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먼저 농부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휴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 첫 신호탄으로 토양개량에 도움을 줄 휴나라발효펠릿과 휴살림아미노볼이라는 기비용 자재 2종을 신규로 개발했습니다.<관련기사 15면> 농부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

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휴을 살리는 일은 우리나라 농부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효과를 입증한 휴살림균배양체를 비롯해 다양한 휴살림의 유기농업 기술을 해외에 전파하겠습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 도시농부들에게도 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친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서울시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행률 1위<관련기사 15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쇼핑몰 등



휴살림은 지난해 12월 22일 워크숍을 갖고 2018년 새해 초심을 잃지않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다시 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칼라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기능성 과일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해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겠습니다. 2018년 새해, 휴살림은 농부와 소비자들의 옆으로 다가서 어깨동무하겠습니다.

모두 다함께 유기농업을 향해 발맞춰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휴살림균배양체 직거래 특별할인판매 실시!

토양종합관리제 휴살림균배양체! 직거래로 아주 싼 값에 구매하세요!



휴살림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농민여러분!
유기농업자재(공시-3-3-152) 휴살림균배양체를
정가 7,900원에서 6,000원으로 특별할인해 모십니다.
유기농업자재로 인증받은 품질 좋고 발효가 잘 된 퇴비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현금결제 시 추가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품질 미생물퇴비 휴살림균배양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18년 특별판매가

7,900원 → **6,000원**
(2개월 내 결제)

괴산, 청주 방문구입
2개월 내 결제: **5,700원**
현금즉시결제: **5,500원**

2018년! 새로운 개념의 비료가 출시됩니다!



리신독성 걱정이 없는 발효유기질펠릿 **휴나라 발효펠릿**
질소가 풍부한 발효콩깻묵아미노산그래놀 **휴살림아미노볼**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완료!)

명분만 앞세운 친환경 통렬히 반성

새해 특별대담 이태근 휴살림 회장-최양부 박사

“친환경농업이란 위선의 가면을 벗자”

1994년 12월 정부 내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농업과’를 설치하고, 유기, 자연농업 등의 육성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해온 「김영삼 정부」는 3년여의 논쟁 끝에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을 법률 제5442호로 제정했다. 1998년 12월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는 ‘친환경농업원년’을 선포하고 ‘환경’ 앞에 ‘친’자를 넣어 법률명칭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위기를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이태근 휴살림 회장과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환경농업정책」의 도입과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양부 박사가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새해 대담을 나눴다.



이태근 회장(오른쪽)과 최양부 박사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이후 20년을 나누었다.

이태근 회장(이하 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년 되는 동안 20번 가까이 개정될 정도로 땀질식 처방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쯤이면 완벽에 가까운 친환경농업 관련법이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친환경농업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양부 박사께서는 최근 “친환경농업이란 위선의 가면을 벗자”라며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경농업이란 가면아래 저농약, 무농약이 확보하고 유기농업이 확대되며 위축되고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친환경이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유기농업은 고사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 등을 앞세워 직불제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가치의 실천을 위

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명분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위선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친환경’이란 가면(이름)이 사실상 유기농을 죽이는 역할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가치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음으로써 이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친환경농업계와 공범관계를 맺어온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

이 친환경농업은 20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20년의 성과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 혁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최 박사님의 말씀처럼 친환경농업 종사자들부터 가면을 벗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부 또한 반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양부 박사 (이하 최) 친환경

최양부 박사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 빈곤 탓 죽어가는 흙에 대한 성찰 없어 생태적 이유 등 고민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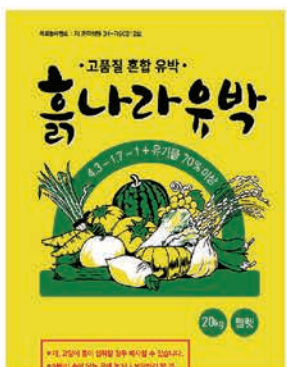
최 2018년은 친환경농업의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진정한 유기 생태농업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새롭게 유기농업을 재편하자는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최 먼저 우리가 왜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해야 하고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농업의 출발은 흙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흙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의 농업은 흙을 죽이는 농업이고 친환경농업마저도 죽어가는 흙에 대한 성찰이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경농업 등 흙에서 떠난 농사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을 유

2018년 고품질 혼합유박 출시!



농협계통유기질비료

친환경혼합유박
흙나라유박
4.3-1.7-1 +유기물70%이상
공시-3-3-189

※ 2018년도 부산물비료 ‘휴살림균배양체’는 보조사업 미참여로 계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특별판매가로 직거래 가능하오니 상담 및 문의주십시오.

☎ 문의전화 : 043-216-2958

휴살림 토양개량용 자재 출시!



유기농업자재
공시-1-3-237

흙이랑 골분 20kg
토양 내 인산, 칼슘 공급
고급액비원료



유기농업자재
공시-1-3-221

흙이랑 혈분 20kg
풍부한 질소원(12%이상)
고급액비원료

진짜 유기농업을 실천해야 할 시기



년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새해 특별 대

기농산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흙이 없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LED로 태양광을 대체한 농사를 짓기도 한다. 흙과 태양을 떠난 농업은 결코 친환경농업이, 유기농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 생태적 이유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다.

이 그 단적인 예로 요즈음은 친환경농가 중 퇴비를 직접 만드는 농가가 별로 없다. 대부분 퇴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유기농업이 흙을 살리는 일이라면 직접 퇴비를 만드는 것이 기초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반성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최 전적으로 동감이다. 농업

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유기농업이 흙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을 해도 실천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한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먹을거리를 찾는 일이다. 인류는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 1만 년 전부터 비로소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 지어 먹는 농사를 시작했다. 성경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는 죄를 범해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네 수고로 먹을 것을 구하되 그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담이 흙을 갈아 농사를 짓게 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흙이 자연의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이것을 나는 '농업의 원죄'라고 부른다. 이 원죄 때문에 흙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되살리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기농업, 생태농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농업의 원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최 농업이란 인간이 식량으로 적합한 작물을 자연으로부터 선발하여 농경지를 만들어 재배하고 관리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땅이 가진 다양한 종류의 양분을 작물을 통해 뽑아내는 일종의 수(약)탈행위다. 쟁기는 작물이 보다 도 쉽게 양분을 흡수할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며, 땅 속의 영양분까지도 뽑아낸다. 이 때문에 일정한 농경지에서 농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땅은 모든 생명력(영양분)을 잃고 황폐해 진다. 외부로부터 땅의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분이 투입되지 않으면 농사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유럽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포식, 3포식 등으로 경지를 늘리는 '휴경농법'이 발전했으나 땅의 황폐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1900년대에 질소 등 화학비료를 개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범승□이라는 사람이 쓴 <범승지서>라는 농서를 보면 농사의 원리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분(똥)을 집어 넣어 윤기 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찍부터 흙이 지력을 유지하도록 분을 비롯한 퇴비 등 각종 유기물을 농경지에 집어넣을 것을 권장했다. 이처럼 동양의 농업은 지난 2,000여 년간 농경지에 유기물(퇴비)을 투입하여 흙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실천해 왔다.

이 동양의 농업이 수천 년간 행해 온 것처럼 생태계와 흙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유기농업,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의 바른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관 것도 농업이 이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야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흙의 역할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최 맞다. 건강한 살아있는 흙이 가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공기 중의 탄소를 저장하는 일이다. 흙이 죽어가면 이런 탄소 저장 창고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탄소가

이태근 회장

“육성법 이후 20년 제자리 걸음” 무농약서 유기농으로 발전 없어 정책 실효성 반성하고 새 길 모색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흙의 탄소저장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흙을 살리는 일이다.

이 지구에서 초점을 좁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흙을 살리자'는 취지에 걸맞는 농법인 유기농업이 육성법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책 중 하나인 학교급식의 경우 무농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농민이 유기농으로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 유기농으로 지은 사과, 배, 딸기 값이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를 모르고 값싼 무농약을 선호하면서 유기농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 인증 또한 유기농업이 아닌 제초제를 쓰지 않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무농약 공급 시스템과 자주 인증 시스템으로 유기과일시장이 죽어버렸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건 잘못이다. 만약 20년 전부터 유기농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었다면 지금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또 정부가 인증기관을 양산해 놓고 부실을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임을 반성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잘잘못을 따지고 대오반성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주인증이란 제3자 검증인식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자체 검증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인증의 객관성이 상실되고 인증의 의미자체가 상실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유기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검출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흙을 살리고 생태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사방식을 인증하는 새로운 차별화된 인증이 필요하다. 이 회장의 지적처럼 친환경농업 20년의 결과가 유기농업의 실종 위기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적 가치를 경시하는 현대적 화학농업, 산업농업과의 문명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다. 철학과 신념이 필요한 일이다. 운동가적 자세확립이 없다면 힘들다. 하지만 도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흙살림을 비롯해 바른 유기농업의 실천에 공감하는 유기농업인과 단체가 친환경농업의 현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정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농업 육성법 20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먼저 반성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농업은 마음이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은 특히 더 그러하다. 이제는 좋은 농업과 나쁜 농업을 말해야 할 때이다. 어느 것이 바른 농업인지 좋은 친환경농업인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농업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친환경농업도 바른 원칙과 철학을 다시 세워 실천해가는 2018년이 되었으면 한다.

정리=이방현 기자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흙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흙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농업에 프랜차이즈 방식 도입해 매출 증대

일본의 6차산업 - 유니언팜

■ 유기 채소 계획 생산
일본 이바라기현 고미다마 시에 있는 유니언팜은 유기 채소 15종류를 비닐하우스에서 계획 생산하여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 연간 12억원을 판매한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농업 경영으로 유명하다. 비닐하우스 133동에서 시금치, 상추, 썬갓, 고마쓰나(일본의 배추 모양의 채소) 등 엽채류 15종류를 3~4일 간격으로 파종하고 주문받은 양을 연간 104회(연 52주x2) 계획, 생산하여 판매한다.

유니언팜은 자본금 1억 6천만 원으로 2000년 1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다마쓰쿠리 사장은 당초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농업자재 판매 회사에 근무했다. 그러나 농가의 고품질화와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농업이 쇠퇴해지면서 농업자재 판매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농업자재의 소비 촉진은 물론 농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새로운 자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성장 산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농업회사법인의 기술을 담당할 파트너로 쓰쿠바 대학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인

두젠밍 씨를 종합기획실장으로 발탁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는 3,000 만원을 출자했다.

두 실장은 유니언팜의 기본 이념을 “유기재배 기술을 확립시키는 것과 농업의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기 JAS(유기 JAS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화학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2년 또는 3년 이상 재배한 채소) 인증과 농장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인 JGAP(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환경 부하 저감,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농장 경영 관리)에 대해서 129항목의 관리점이 정해진 농장에 대한 인증제도) 인증 획득은 회사의 기본 이념과 일치하므로 설립 이듬해 취득했다고 설명한다.

■ 공산품처럼 생산
연간 15품목의 유기 채소를 안정적으로 일정량 출하하기 위해 52주간의 생산 계획 달력을 하우스별로 만들어 부착하고 있다. 과거의 재배 자료를 기본으로 시기별, 하우스별 상황에 맞게 높은 정밀도의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두 실장은 각 농장을 매주 순회



유니언팜은 비닐하우스에서 15종류의 유기채소를 계획 생산하여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 연간 12억원을 판매한다.

공산품처럼 주문량만큼 계획 생산·판매
인지도 높아져 하우스 1동서 133동 확대
유기채소 15종류 생산해 연간 12억 매출

하면서 각 농장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농장 전체의 생육 관리와 출하 관리를 해서 연중 무휴로 출하하고 정시, 정량, 정질, 정가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주문받은 양을 계획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산물을 기후 조건에 따라 풍흉이 결정되고 가격 등락도 심하다. 그러나 시설 농업의 경우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유기 시설 농업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독특하여 신문과 TV 등에 자주 보도되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도 순조롭게 되었다. 처음에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 시작

했으나 지금은 133동으로 확대되었다.

철저하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토양 만들기와 천적 농법,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여 유기 재배한다. 10a의 포장에 연간 3톤의 완숙 식물계 퇴비를 사용한다. 동물 분뇨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낙엽, 볏짚, 잔디 등 식물 퇴비를 사용하고, 산도는 6.5~7.0을 유지한다. 미생물 농약은 사서 사용한다. 미생물은 가격은 비싸지만, 효과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다. 동일 포장에는 동일과의 작물이 3~5년 이내에는 연작되지 않도록 윤작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 작물에서 상품으로
수확 이후의 채소는 화학 물질의 혼입이나 부작은 물론, 다양한 이물질의 혼입과 병원성 세균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상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 품목이 SEICA(인터넷에 공개된 농산물에 관한 공적 데이터베이스. 등록된 농산물에는 하나하나에 카탈로그 번호가 발행되어 PC나 휴대전화로 채소가 생산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웹상에 재배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팍마다 생산농장 코드와 개체 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단시간에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정확한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 재배이지만 품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회사의 건강 채소는 병충해의 피해를 받기 쉬운 유기 재배이지만 외관을 중요시한다. 해충의 부착, 해충이나 질병의 피해, 잎이 혼입되지 않도록 몇 번이고 점검한다. 또 품질에 대해서도 채소의 성분 분석(초산이

은, 당도 등)을 매주 하고, 과학적으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과를 생산 현장에 피드백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은 품목별 판매 예측량의 120%를 생산해서 날씨 변화와 잡초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과잉 생산할 때에는 신규 판매처 개척용으로 사용한다. 120%를 생산 목표로 했으나 80% 정도가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과잉 생산도 없고, 과소 생산도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 농업 생산도 프랜차이즈
특히 유니언팜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0대 미만의 청년들을 입사시켜 2년 동안 교육해 독립된 농장을 경영하고, 유니언의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농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래서 창설 초기에 프랜차이즈 방식의 농업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유니언팜의 농산물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매년 20%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3인의 연수생이 독립해서 그룹의 일원이 되어 비닐하우스 3.5ha를 경영한다. 연간 매출액은 12억원이다.

2009년 10월에 후계자 육성과 환경 보전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어 농림성의 표창을 받았다. 유니언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신규 취농 희망자에게, 유니언의 재배 노하우와 출하 기준 등을 습득시켜 독립한 유니언팜의 브랜드 <건강 채소>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특전이 있다.

유니언팜의 채소 브랜드는 <건강 채소>이다. 대지가 건강하면 건강한 채소가 생산된다. 그래서 이를 섭취한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은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 본래의 생명력을 살려서 건강하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동시에 유기 재배 방법의 연구, 그리고 유기 농산물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면 지속적인 유기 재배가 가능할 것인지 유니언팜 스스로 영원히 실험과 연구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고 두 실장은 힘주어 말한다.

글 현의송 흥살림 고문

농부의 꿈, 흥살림 도서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흥살림 유기농 10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이력의 살리기
이태근 저 | 8,000원
이태근 흥살림 회장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언한 글들을 모았다.



좋은 흙
오철수 저 | 7,000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오철수 시인이 충북 괴산에 위치한 흥살림 농장에서 농부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단상을 노래한 시를 모았다.



농부로부터
이태근, 천호균 저 | 15,000원
이태근 흥살림 회장과 씩지농부 천호균이 주고받는 새로운 삶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 '농사, 사회적 기업, 새로운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흥살림 후원회원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흥살림연구소

구입 및 문의사항 흥살림 출판 사무국 043-833-5004

서류심사 거쳐 현장 점검

친환경 인증심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인증 신청 품목 실제 재배 여부와 토양·작물 상태 등 검사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는 크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

1. 신청서, 생산계획서의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경영관련자료(영농일지)의 기재 사항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3. 추가로 인증기관이 요청한 구비 서류 준비
- * 심사원은 신청서와 생산계획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된 내용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필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장심사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

- 가. 면담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책임자 등 신분을 확인하고 심사원 소개
 - 현장심사의 시작을 말하고 심사원 역할 설명
 - 신청 서류내용과 현장내용이 일치하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
 - 필요한 자료는 현장에서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음.



- 인증기준의 이해여부
 - 농자재 구입, 제조내역
 - 농산물 생산/판매 내역
 - 일반재배(병행생산) 내역 확인
- * 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면담과 현장심사를 진행하지만, 허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점검

- 인증 신청한 필지의 지면과 면적 확인
- 인증 신청 필지의 경계지 및 완충지, 보호시설, 수계 확인
- 인증 신청한 품목을 실제로 재배여부와 면적확인
- 토양 상태와 작물의 재배 상태
- 생산계획서의 내용대로 실천하는지 여부(해당 농자재 등의 구입, 사용, 보관내용)
-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기록돼 있지 않은 자재 및 금지 자재의 사용 보관여부 확인
- 검사를 위한 시료(작물체, 토양, 용수 등) 수거

다. 심사의 종료

-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
- 발견된 잠재적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 징구

라.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신청서, 생산계획서의 내용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

칼럼

옛날부터 어른들은 똥 꿈을 꾸면 좋은 꿈 즉 길몽이라 했다.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고 해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주로 동물의 똥에서 채취해 만들어 진다. 인도네시아의 사향 고양이와 먹고 배설한 커피 열매를 모아 만든 루와 커피는 kg당 1000불, 커피 한잔에 5만원에서 비싸게는 10만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보다도 더 비싼 커피는 검은 아이보리라 불리는 타일랜드 코끼리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로 kg당 1100불까지 한다. 스리랑카와 태국에서는 코끼리 똥을 이용해 종이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똥은 인간의 훌륭한 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내가 어린 시절인 1960~70년대만 해도 인분과 소변은 비료로, 소똥은 비료와 펄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똥을 일반처럼 던지는 미국 오кла호마 주의 소똥 던지기 축제, 한 마리의 소를 내보내 돈을 건 사람의 땅에 먼저 똥을 누면 이기는 게임인 스위스의 소똥 빙고게임도 있다고 한다.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러시아의 세균학자 매치니코프는 장수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불가리아 지방에서 먹는 요쿠르트에 특정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사람의 장에서 증식하여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하며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요쿠

똥도 약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

르트를 만드는 유산균을 우유를 먹는 것 태어난 아기의 똥에서도 분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부화된 병아리들은 어미의 똥에서 이로운 세균들을 얻게 되어 해로운 세균들의 감염을 억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람에게도 똥을 이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장이 약하여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의 똥을 채취하여 고형물을 제거한 뒤 환자의 장내에 투입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장에 살던 이로운 미생물들이 환자의 장내에 정착해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까지 발전했다. 날씬한 여성과 비만인 여성의 장내 미생물 분포가 다르고 거세한 수소와 정상 수소의 장내 미생물 분포에 대한 결과 또한 다르며 식물의 주변에도 어떤 미생물 집단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식물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며 생산성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의 집단에 대한 연구를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라 한다. 최근에는 인체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가고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매우 흥미 있는 연구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친환경 농업 분야에도 식물 주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밀 진단하여 이에 맞는 미생물군들을 인공적으로 토양에 처리함으로써 병을 방지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식물 마이크로바이옴(Plant Microbiome) 연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이미 온 것 같다. 글 구본성 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간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10-8 은산빌딩204호(각리640-3)
 전화 043-212-0934 전송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c.kr 이메일 admin@kafc.kr

토양 pH 6.4에서 작물의 미네랄 풍부

생산성 높은 가정원에 10가지 팁<上>

1. 먹기 직전에 수확하기
저녁에 집에 돌아온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작물을 바로 수확한다. 저장하면 양분 손실이 많다. 완두콩의 일종인 스노피는 비타민의 50%가 12시간 이내에 소실된다. 수확하여 남는 게 있으면 바로 냉동할 경우 양분 손실은 5%에 그친다.

2. 작물 사이에 알팔파 심기
알팔파와 같은 콩과식물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 덕분에 다른 작물이 질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뿌리에서 유기산을 내어 토양에 있는 칼슘과 인산 결합을 끊어 작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칼슘과 인산은 광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다. 유기산은 대부분의 토양에서 가장 부족한 생명체인 유용한 곰팡이의 증식을 촉진한다.
알팔파 잎은 뛰어난 알칼리 식품이며, 양분이 풍부하여 샐러드나 그린 스무디 재료가 되며, 꽃도 달콤하여 별미다. 알팔파 줄기를 정기적으로 예초기로 잘라 토양을 덮어주면 최상의 녹비가 된다. 알팔파의 C/N율(탄소 대 질소 비율)은 토양에 매우 이상적이다.
알팔파로 피복하면 원생동물이 증식하여 지렁이를 부른다. 알팔파 외부 왁스층에는 트리아콘타놀이라는 식물생육촉진 물질이 들어 있다. 토양을 덮은 알팔파 위에

유산균(휴살림 활인산)을 뿌려주면 생성된 유산균이 트리아콘타놀을 용해하여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한다.

3. 지렁이 주스 자유롭게 사용하기
지렁이주스(지렁이를 물과 함께 갈아 여과한 추출물)에는 수십억 마리의 유용 미생물이 들어 있다. 이것을 20리터 양동이에 200ml를 넣고 24시간 배양한 후 사용한다.

4. 토양 pH 교정하기
식물에 의한 양분흡수는 토양의 pH에 따라 다르며, pH 6.4에서 작물의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다. 또한, pH가 적당하면 칼슘이 충분하다. 칼슘은 작은 흙덩어리를 만들어 뿌리가 있는 흙속으로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여 작물의 면역력을 높이고, 토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함으로써 식물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흡수되어 광합성을 증진한다.
토양 pH가 6.4보다 낮으면 석회석을 m²당 점질토에서는 2kg, 모래토에서는 1kg정도 작물을 심기 전에 흙과 잘 섞어 준다. 석회고토를 줄 때는 각각 1.5kg 및 0.7kg 사용한다.

5. 식물에 양분 직접 주입하기
가정 먹거리 재배를 하는 목적은 단지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잡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미

네랄이 고루 들어 있는 액비를 엽면비사를 통해 식물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식물체 측정하기
온전한 가정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이 과정을 마스터하는 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혈액, 머리카락, 타액, 오줌을 분석하여 정확한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다음 두 가지 간단하고, 저렴한 도구에 의해 정원 작물에 대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 굴절당도계
브릭스가 높으면 풍미 있고, 약성이 높으며, 신선도가 오래 간다. 또, 병충해도 적어진다. 브릭스가 낮으면 작물을 최적화하는 연료가 부족한 것이다. 당도계의 브릭스를 나타내는 선이 선명하면 칼슘 결핍을 나타낸다. 선이 불분명하면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문제가 없는 작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2) 즙액 pH
꼭대기 잎과 바닥 잎의 즙액의 pH를 측정했을 때 아래 잎의 pH가 낮으면 가리(칼륨) 결핍을 나타낸다. 바로 칼리비료를 시비하지 않으면 가리결핍 증상인 아랫 잎 가장자리에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이어서 병해 발생도 증가한다. <다음 호에 계속>
자료 : 호주 NTS 뉴스레터 정리 최관호 휴살림 고문



텃밭에 키우는 작물은 먹기 직전 바로 수확해야 양분 손실이 적다.

작물 사이에 알팔파를 심으면...

1.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 고정
2. 칼슘과 인산 결합을 끊어 이용 가능
3. 알팔파 잎 자체가 뛰어난 알칼리 식품
4. 예초 후 잔사물은 최상의 녹비
5. 피복으로 사용하면 지렁이 증대

⋮

탈취, 가습, 제습, 공기 중 유해물질 제거 등 **천연 공기정화효과!**

국산 참나무로 구운 **휴살림 백탄 참숯**

| | | | |
|---|-------------|--|---|
|  | 원통형 참숯 | 조각 참숯 |  |
| | 2kg 15,000원 | 10kg 33,000원 2kg 10,000원 300g 1,700원 | |

봄보다 가을에 파종해야 발아율 상승

약초 유기재배<11> - 구릿대(백지)



■ 기원 : 미나리과(산형과, Umbelliferae)에 속한 여러해살이 풀인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 et Hooker f.* 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잎이 누렇게 될 때 채취하여 수염뿌리와 진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 과명 : 미나리과(산형과)

■ 약재명 : 백지(白芷)

■ 이용부위 : 뿌리

■ 산지 :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 특히 북부의 습한 골짜기에서 자라며, 재배하기도 한다.

■ 채취 : 가을에 꽃대가 나오지 않은 식물의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다.

■ 응용 : 동의치료에서 진정약, 진통약, 정혈약으로 감기, 두통, 안면신경통, 치통에 쓴다. 또한 산후에 통경약으로 쓰며 코피, 피오줌, 하혈을 멈춘다고 한다. 류머티즘과 척수신경근염에도 쓴다. 특히 바람을 내보내는 약이므로 바람과 찬기운으로 생긴 병에 쓰면 좋다. 물에 담근 것을 외용하면 피부진균을 억제한다. 담배 제조시 향료로도 사용된다.

■ 식물 : 높이 1~1.5m 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2~3번 3개씩 갈라진 깃꼴겹잎(우상복엽羽狀複葉)인데 쪽잎은 달걀 모양이다. 여름철에 흰색의 작은 꽃이 가지 끝에 모여 핀다. 열매는 작은 타원형인데 날개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전 지역 특히 북부의 산골짜기, 개울가의 습한 곳에서 자란다.

■ 종자의 특성

○ 구릿대 종자 100립중 : 0.14 g

○ 유기농업에서는 합성화학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GMO종자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종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기재배 구릿대의 종자를 자가 채취해서 증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릿대 종자 100립의 크기와 양



구릿대 생육 2년생 모습.

■ 재배 환경

○ 토양 : 사양토~양토로써 토심이 깊고 유기물함량이 많으며 물빠짐이 잘되는 곳이 좋다. 모래땅에서는 가는 뿌리가 많이 발생하고 질흙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연작하면 발육이 좋지 않고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한번 심었던 밭에는 2~3년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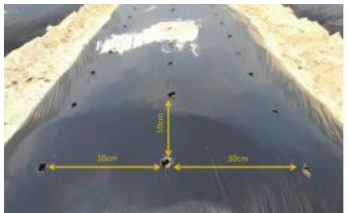
○ 기후 :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력이 강하며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 지역 :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서늘한 중북부 이북 지방에서 재배가 유리하다.

■ 재배 방법

○ 거름주기 : 직파재배는 당년에 수확해야 하므로 비교적 비옥한 땅에 거름을 많이 주어 뿌리의 비대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뿌리의 비대생육이 좋지 못해 당년에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뿌리가 굵은 것(뿌리직경 0.8cm 이상)은 이듬해 추대하여 뿌리가 목질화되어 상품가치가 없어진다. 발을 갈기 전에 10a당 퇴비 1,200kg 이상을 밭에 뿌려준다. 웃거름은 6월 하순과 9월 중순 2회에 걸쳐 질소액비(어분액비 등)를 사용한다.

○ 두둑 만들기 : 두둑 상면 폭은 100cm로 하고 헛골은 60cm 높이는 20~30cm로 한다. 3월 식재가 가능하다. 구릿대는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생육이 좋으므로 비닐 피복시 검은 비닐이 좋다. 두둑을 비닐로 멀칭을 할 경우 제조작업이 수월하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을 경우 파종 또는 정식 후 벗짚 등으로 덮어주면 수분유지로 뿌리활착에 도움이 되며 제조발생을 억제하여 제조작업이 보다 수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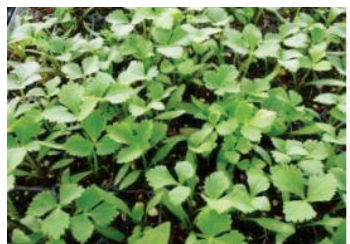
재식거리 30 × 10cm(1두둑에 3열)

○ 재배방법 : 직파재배와 트레이육묘이식재배로 할 수 있다.

○ 직파재배 : 파종기는 재배 지역에 따라 다르며 중북부지역에서는 가을파종을 주로 하고 중남부지역에서는 봄 파종을 주로 한다. 가을파종은 봄 파종 보다 발아율이 높아 유

리하다. 가을파종은 10월 하순~11월 상순, 봄 파종은 3월 하순경이 적기이다. 재식거리는 100cm 두둑에 3열로 주간 10cm 간격(30 × 10cm)으로 종자를 3~4립 점뿌림한다. 2~3cm 깊이로 점뿌림한 후 흙을 덮는다. 종자가 출아하여 본엽이 2~3매 되었을 때 솟음작업을 하여 건실한 것으로 1주를 남겨 놓는다. 종자 소요량은 3.3㎡(1평)당 60곳 파종시 10a(300평)당 87g 정도 필요하다(100립중 0.14g 기준).

○ 트레이 육묘 이식재배 : 3월 중순 트레이에 파종한다. 105구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1구당 2~3립 파종하며 35일 정도 육묘 후에 본엽이 1~2매 되었을 때 1구당 1개씩 남겨두고 솟음작업을 해 준다. 정식시 재식거리는 100cm 이랑에 3열로 주간 10cm 간격(30 × 10cm)으로 한다. 정식기는 본엽이 2~3매 나왔을 때이며 중부지역(음성기준)은 4월 하순이 적기이다. 묘 소요량은 3.3㎡(1평)당 60곳 식재시 10a(300평)당 19,800개(10% 더한 것)가 필요하다.



4월 26일 생육 모습(3월 21일 파종 후 35일, 본엽이 1~2매 나온 상태. 본엽이 2~3매일 때 정식함).

○ 포장 관리 : 직파재배는 생육초기 2~3회에 걸쳐 제초를 해 주어야 한다. 제초작업시 북주기도 겸해서 실시한다.

○ 병충해 관리 : 주로 발생하는 병은 습기가 많은 곳에서 균핵병이 발생된다. 발생초기에 발견되는 포기는 뽑아서 제거하고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한다. 7~8월 장마기에 지상부 생육이 왕성해지면 흰가루병의 발생이 심하므로 갈습제재와 유황제재를 적절히 활용한다. 심식충, 야도충, 진딧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기비로 퇴비 사용시 완숙퇴비를 사용하며 유황제재 및 해충기피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 채종 : 종자는 2~3년생의 건실한 포기에서 성숙된 종자를 채종하여 사용한다. 채

종에 적합한 지대는 400m 이상이며 채종 적기는 성화 후 50일이다. 채종된 종자는 가정용 선풍기를 이용하여 선별이 가능하며 백립중이 0.3g 이상에서 발아율이 높다. 종자는 채종 후 저장기간이 길수록 발아율이 저하되므로 가급적 빨리 파종하는 것이 좋다. 채종된 종자는 잘 건조시켜서 종이봉투나 마대에 담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종자 보관은 냉장 보관보다 상온 보관 시에 발아 소요일수도 짧고 발아율도 높다.

○ 수확 및 건조 : 11월중·하순 땅이 얼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수확방법은 지상부를 베어내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잘 캐서 뿌리의 흙을 털고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다. 어느 정도 말라 부드러워지면 손질하여 뿌리를 곧게 펴고 잔뿌리를 모아서 형태를 잡은 후 크기별로 선별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다시 완전히 건조시킨다. 건조는 40℃에서 27시간 정도 건조시키면 된다.

○ 저장 :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한다. 해충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존에 유의해야 한다.

■ 백지의 활용

○ 약재의 특징 및 활용

-약재특징 : 백지는 맵고 따뜻한 건조하며 방향성이 있다. 매운 것은 멍친 것을 발산시키는 성질이 있고, 따뜻하고 말라 있어서 습기를 잘 제거해주며, 방향성이란 것은 향기가 잘 퍼져 나간다는 것을 말하니 강한 향기를 맡으면 막힌 코가 뚫리는 것처럼 막힌 구멍을 뚫어준다. 즉 습기가 차 있어서 오는 통증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막힌 구멍을 뚫어주므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데 사용한다. 건조하고 흐르는 것을 멈추어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여성들의 대하증에 자주 쓰인다.

-수치 : 잡질雜質(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물기가 스며들면 두껍게 썰어 건조하여 사용한다.

-주의사항 : 너무 많은 양을 달임약으로 쓰면 독미나리의 경련독과 비슷한 성질이 생겨나서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래서 소량씩 달여 복용해야 한다.

글 임진수 박사(휴살림연구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살림홈페이지(www.heuk.or.kr)를 참고하세요

하우스 내 고습으로 인한 생리장애 방지

흙살림 농자재 - 잎살림

토양미생물제로 기능이 한층 강화

농촌진흥청 특허균주를 사용한 미생물농약으로 많은 농가의 사랑을 받아 온 '잎살림'이 토양미생물제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잎살림은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토양미생물제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 생육기에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잎살림은 농촌진흥청 특허균(특허번호: 제 100407074호)인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을 균주로 한 미생물제로 7종 이상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펩타이드를 생산하여 토양의 항균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항균펩타이드는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항생물질로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기지 않아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의료와 농업, 식품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잎살림의 균주는 항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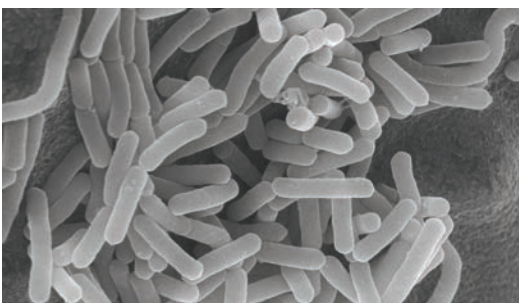
외에도 토양근권미생물로 작물의 뿌리 생육과 발달에 유리한 토양 환경을 조성한다. 토양 내 유해균과의 길항작용으로 유익균의 번성에 기여한다. 토양 내 유익균이 우세하면 각종 양분을 가용화하고 유기질을 분해하여 유기물함량을 높여준다.

잎살림은 작물의 전생육기에 관주 및 엽면시비가 가능하며 특히 육묘기에 사용 시 모종의 생육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시설하우스 난방이 본격화되는 겨울철 내부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생리장애 방지도 효과적이다. 관주 시 800~1,000평에 잎살림 10리터를 500배 희석하여 사용하고 엽면시비에는 100배 희석액을 살포하면 된다. 작물의 상태에 따라 3~4일 간격으로 수 회 살포해도 좋다.

사용 및 구입문의: 흙살림 농자재사업부 043-216-2958



겨울철 하우스 내부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생리장애가 나타나기 쉽다(왼쪽 사진). 잎살림을 엽면시비하면 이런 생리장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허균 바실러스서브틸리스 모습.



잎살림의 항균효과를 시험한 모습.

잿빛곰팡이병 잡아라! 방제와 생육촉진을 한 번에!

토리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특허번호 0417632)로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병,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전염병원균을 억제합니다.



*등록공시: 공시-2-4-58
*등록번호: 43-살균-1

*품 목 명: 트리코델마 하지아눔 YC459 분상제

구입 및 문의사항 흙살림 농자재 사업본부 043-216-8179

건강한 토양을 위해! 튼튼한 작물을 위해!

잎살림!

흙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 진흥청 특허 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로 흙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액상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흙살림 | shop.heuksalim.com

민고 쓸 수 있는 휴살림 친환경 농자재 구입 문의 080-333-8179 http://shop.heuksalim.com

· 작물 충해 및 병해 관리용자재

탄탄탄 1L/10L



미생물제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4-13

- 원료 또는 성분 : Streptomyces rimosus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 | |
|-----------|------------------|
| 작물명 | 고추, 배추, 상추, 콩, 파 |
| 병해충명 | 탄저병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병 초 엽면 살포 |
| 사용량 | 100배 희석액 |

- 특징
 - 탄저병 방제 시 74%의 방제율을 나타냄
 - 국내 토양에서 분리한 토착 방선균에 의한 항생물질 함유
 - 발병 전이나 초기에 방제 시 효과적

잎살림 1L/10L



미생물제제

- 원료 또는 성분 : Bacillus subtilis JKK238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 | | | |
|-----------|--------------------------|------|-----|
| 작물명 | 딸기 | 오미자 | 벼 |
| 병해충명 | 흰가루병 | 흰가루병 | 도열병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병 초 7일 간격 심화 시 3일 간격 | | |
| 사용량 | 100배 희석액 | | |

- 특징
 - 곰팡이병 방제 효과
 -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 생성, 작물병 예방, 방제
 - 항균펩타이드 생산 미생물 균주, 농촌진흥청 특허 균주

휴살림 황수화제 500ml



유황
공시등재번호
공시-3-4-14

- 원료 또는 성분 : 유황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9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 | |
|-----------|----------------------|
| 작물명 | 방울토마토, 오이, 배추, 상추, 콩 |
| 병해충명 | 흰가루병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병 초 엽면 살포 |
| 사용량 | 2000배 희석액 |

- 특징
 - 흰가루병 방제 시 74%의 방제율을 나타냄
 - 살균 효과가 뛰어난 유황을 현탁한 제품
 - 채소류 흰가루병을 비롯, 과수 보호제로 사용이 가능
 - 2,000배 사용으로 약제 사용량이 적어 방제비용 절감

토리 250g



미생물제제
공시등재번호
공시-2-4-58

- 원료 또는 성분 : Trichoderma harzianum YC459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 | |
|-----------|-----------------------------|
| 작물명 | 상추, 오이, 들깨, 배추, 시금치, 벼, 미나리 |
| 사용시기 및 방법 | 생육기 엽면시비 |
| 사용량 | 100배 희석액 살포 |

- 특징
 -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
 - 잿빛곰팡이,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 전염병균을 효과적으로 억제
 - 종자침지 또는 상토혼합처리로 병저항성을 유도
 - 작물병 발생 억제와 생육 촉진효과로 수확량이 증가

잘들어 500ml



식물추출물
공시등재번호
공시-3-5-7

- 원료 또는 성분 : 회화나무, 멸구슬나무, 양명아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13 휴살림 부설연구소 시험성적)

| | |
|-----------|-------------------------------|
| 작물명 | 벼,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쌈배추 |
| 병해충명 | 진딧물, 벼멸구, 노린재, 매미충, 가루이, 깍지벌레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생 초 엽면살포 |
| 사용량 | 1000배 희석액 |

- 특징
 - 진딧물과 벼멸구, 매미충, 가루이에 탁월한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광범위 살충제
 - 노린재와 깍지벌레에 초기 방제 시 높은 효과를 나타냄
 - 살충성분이 함유된 천연 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

충식이 500ml



식물추출물
공시등재번호
공시-3-5-038

- 원료 또는 성분 : 식물추출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 | |
|-----------|------------------------------------|
| 작물명 | 벼,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 쌈배추 |
| 병해충명 | 진딧물, 응애, 노린재, 청벌레, 깍지벌레, 나방류 애벌레 등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생 초 엽면살포 |
| 사용량 | 5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300평 기준) |

- 특징
 - 4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추출물 함유
 - 광범위 해충방제
 - 고농도 식물추출물 함유로 즉각적인 살충 효과
 - 수용성 액제로 살포 후 약흔이 거의 없음

청달래 1L



미생물제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5-1

- 원료 또는 성분 : Bacillus thuringiensis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안동대 자연과학대학 시험성적)

| | |
|-----------|---------------------|
| 작물명 | 배추, 상추, 고추, 무, 브로콜리 |
| 병해충명 | 파밤나방, 배추좀나방 |
| 사용시기 및 방법 | 발생 초 엽면 살포 |
| 사용량 | 500배 희석액 |

- 특징
 - 파밤나방 방제 시 52.5%, 배추좀나방 방제 시 70% 방제율을 나타냄
 - 해충의 체내에서 독소를 발현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 미생물제제로 약해 우려가 낮음
 - 다른 제품(휴살림 자재)과 혼용이 가능

잘붙어 500ml



효과증진제
공시-3-4-025

- 원료 또는 성분 : 목초액, 천연황산가리, 계면활성제
- 사용방법

| | |
|-----------|-------------------|
| 사용시기 및 방법 | 엽면 살포 사용 전 충분히 섞음 |
| 사용량 | 1,000배 희석 |

- 특징
 -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계면활성제 포함, 타제품과 혼용 시 사용 효과 증진
 - 목초액의 천연유기산에 의해 비료나 약제 용해도 증진, 각종 미량요소의 흡수를 통해 건실한 생육 보조
 - 가리와 유황의 동시 공급으로 결핍 증상 회복에 도움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043-212-0935
 쇼핑물주문 :

쇼핑물 : shop.heuksalim.com

유기농 못난이사과 5kg 30,000원 10kg 55,000원



개당 220~250g 내외

사과들이 '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해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껍질 곳곳에 반점이 생겨버린 것이죠. 가뭄과 호우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기후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버틴 흔적들입니다. '검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건강한 맛을 느껴보세요. 검은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문을 기다립니다.

친환경 쌀, 토종잡곡



유기농 백미(골든퀸) 8kg
39,800원



유기농 현미(골든퀸) 4kg
22,000원



유기농 찹쌀백미-토종돼지찰
(1kg/봉) 6,300원



선비잡이콩400g
6,000원



[햇곡] 강낭콩 500g
3,900원



아주까리밤콩(흑색) 400g
6,000원



붉은밤콩 400g
6,000원



서리태(속청) 500g
7,800원



[햇곡] 유기농 찰수수 500g
8,000원



[햇곡] 찰수수 500g
4,500원



[햇곡] 찰기장 500g
5,500원



청차조 500g
5,200원



노랑차조 500g
4,900원



토종잡곡세트
선비잡이콩 400g, 아주까리밤콩 400g,
찰수수 500g, 돼지찰벼 500g 27,000원



무농약 제주 검정찰쌀보리
500g 5,200원



이제 집에서 편하게 드시기만 하세요.
구룡포 과메기 + 친환경 채소 세트

매주 화요일 오전 마감, 목요일 택배 발송

34,000원

과메기 10마리(20쪽)

친환경 채소(알배기 쌈배추 1/2통, 모듬쌈 200g, 청양고추 150g, 깻마늘 100g, 미역, 김, 초고추장)

친환경 과일, 채소류



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5,500원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5,500원



친환경 완숙토마토 1kg
5,500원



저탄소 사과 1kg(4~6입)
5,500원



저탄소 사과 2.5kg
13,800원



무농약 골드키위 1kg
8,500원



유기농 태양초고춧가루 500g 24,900원



친환경 적상추 150g
1,200원



친환경 깐양배추 1ea
3,300원



유기농 단호박(개)
5,900원



친환경 대파 300g
1,200원



친환경 양파 500g
1,900원



친환경 청상추 150g
1,200원



유기농 늙은호박(5kg~)
10,900원



무농약 애호박 1ea
1,500원



표고버섯슬라이스 100g
1,900원



새송이버섯 300g
2,500원



무농약 표고버섯 1kg
12,900원

친환경 완성김치



무농약 갓김치 1kg
14,830원



유기농 총각김치 1kg
17,170원



유기농 백김치 1kg
14,440원



유기농 깍두기 1kg
14,050원



유기농 석박지 1kg
14,050원



유기농 포기김치 1kg
114,830원

홍살림 친환경 레시피 겨울철 감기없는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



고추장닭갈비 요리 박스

주재료 : 유기농 고추장 닭갈비 400g, 친환경 대파 100g, 친환경 양파 50g, 친환경 고구마 2ea & 1ea(큰것), 친환경 깐양배추 1/2통(500g)

1. 고추장 양념을 버무리 필요없이 닭갈비를 넣으시고 대파, 양파, 고구마, 배추를 썰어 넣으시면 요리 끝!
2. 추가로 상추와 깻잎을 넣어 주시면 맛있는 닭갈비 완성!
3. 유기농 닭갈비와 친환경재료로 건강한 식탁을 꾸려보세요.

항생제 & 화학약품 NO!!

행복한 닭으로 만든 유기농 고추장 닭갈비가 왜? 좋을까요?

단위 면적당 최적 마리수(평당 33마리 이하)로 사육함으로써 닭들이 농장을 운동장 처럼 활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라도록 동물복지에 지원합니다.



고추장닭갈비400g
13,600원



간장닭갈비 400g
13,600원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목살 400g
14,000원



미박삼겹살 400g
14,000원



한우양지(300g)
18,800원



무항생제 삼겹살 400g
14,000원



무항생제 목살 600g
14,000원



고추장닭갈비 [냉동]
400g 13,600원



간장닭갈비 [냉동] 400g
13,600원



간장닭날개구이 [냉동]
400g 12,600원



닭볶음탕 [냉동] 900g
17,000원



닭봉 [냉동] 300g
7,600원



닭wing [냉동] 300g
7,600원



무항생제 유정란 10구
10,000원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가공식품



참기름 250ml
22,000원



들기름 250ml
15,400원



홍살림 기름세트 실속형
40,000원



구운 카카오 100%
(100g) 8,000원



카카오닙스 (8g*30봉)
36,000원



유기농 설탕 5kg
14,800원



무농약 으뜸약도라지
500g 30,000원



무농약 도라지티백차
44,900원



무농약 약도라지액
26,900원



무농약 도라지 세트
49,800원



우리밀 부침가루 500g
3,200원



우리밀 튀김가루 500g
3,200원



도라지배바르게담아 30포
42,000원



생강 바르게 담아 30포
31,000원



양파 바르게 담아 30포
42,000원



현미 바르게 담아 30포
25,000원



숨쉬는 야채수 30포
29,800원



우리집자른당면 300g
5,190원



라온현미유 900g
8,500원



겉질 깐 들깨가루 100g
6,600원



장희도가 천연발효식초
현미 250ml 11,000원



유기농 치킨스톡 200g
6,600원



청풍명월 한우 사골곰탕
600ml 5,900원



유기농국산냉동블루베리
500g 12,500원

휴살림 농산물 직거래 농장에서 식탁까지



12월 휴살림 주요 활동

| 날짜 | 장소 | 구분 | 인원 | 내용 |
|--------|----|-----|----|--------------------|
| 1일 | 서울 | 토론회 | | 대안농정대토론회 |
| 6일 | 청주 | 간담회 | 10 | 농식품부 연구과제 전문가 간담회 |
| 6~7일 | 무주 | 워크숍 |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워크숍 |
| 8일 | 서울 | 학회 | | 한국유기농업학회 |
| 11~12일 | 보은 | 회의 | | 농식품부 연구과제 3차 현장평가회 |
| 12일 | 수원 | 간담회 | | 농식품부 연구과제 전문가 간담회 |
| 13~14일 | 부안 | 회의 | | 농식품부 연구과제 4차 현장평가회 |
| 14일 | 서울 | 이사회 |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사회 |
| 14일 | 서울 | 회의 |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 22일 | 청주 | 회의 | | 휴살림 워크숍 및 송년회 |
| 29일 | 청주 | 행사 | | 2017년 종무식 |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권택기, 권혁수, 김광부, 김규운, 김기연, 김남운, 김동연, 김동진, 김록원,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정송,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종연, 리병현, 리양재, 리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기환, 박동운, 박래훈, 박상일, 박영구, 박익준, 박정국, 박종삼, 박중수, 박중원, 박중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동환,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약,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운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언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점섭, 안경택, 양병근, 어해용,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육중식, 윤국현, 윤성희, 윤술기,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흥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환, 정청천, 조기진, 조복남, 조 술, 조중기,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세운,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함유경,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중윤, 황대호, 황서영, 황인걸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휴살림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1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 1월 1주차 | |
|--------|-----|
| 품목 | 단위 |
| 유정란 | 10알 |
| 무농약두부 | 1팩 |
| 삼치 | 1봉 |
| 남해시금치 | 1봉 |
| 시래기 | 1봉 |
| 양배추 | 1통 |
| 우엉조림 | 1봉 |

| 1월 3주차 | |
|--------|-----|
| 품목 | 단위 |
| 유정란 | 10알 |
| 무농약비지 | 1봉 |
| 앞다리살 | 1봉 |
| 감자 | 1봉 |
| 당근 | 1봉 |
| 브로콜리 | 1봉 |
| 카레 | 1봉 |
| 양파 | 1봉 |

| 1월 2주차 | |
|--------|-----|
| 품목 | 단위 |
| 유정란 | 10알 |
| 유기농두부 | 1팩 |
| 동태 | 1봉 |
| 양상추 | 1봉 |
| 황태채 | 1봉 |
| 얼갈이 | 1봉 |
| 건미역줄기 | 1봉 |

| 1월 4주차 | |
|--------|----|
| 품목 | 단위 |
| 범산목장우유 | 1병 |
| 돈가스 | 1봉 |
| 어린잎채소 | 1봉 |
| 선비잡이콩 | 1봉 |
| 간매추리알 | 1봉 |
| 양송이 | 1봉 |
| 봄동 | 1봉 |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휴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휴살림 신문은 휴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 모두 읽는 소식지입니다. 휴살림 신문 광고 문의: (사)휴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043-212-0935
shop.heuksalim.com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알찬꾸러미

월4회 12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의 무항생제 병사유 정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매주 수요일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병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매주 화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매주 화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매주 수요일

1월, 건강한 생명력만 겨울을 기른다

월령의 지혜를 배운다

소한과 대한이 들어 있는 1월은 낮도 영하권입니다. 흙살림토종농장에는 김종구 교수의 조각상 <흙의 여신>이 텅 빈 농장을 내려다보며 겨울을 기릅니다. 올 한해 농사일로 고생한 미생물 농부님이 흙 깊이에서 겨울잠을 잘 주무시는지, 하우스 지황(地黃)은 별을 아껴 잘 버티고 있는지, 잠시 일손 놓았던 농장주는 새마음으로 전국토 유기농업화 쟁기를 짊어질 몸 만들기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겨울을 잘 길러야 건강한 봄이 만들어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폭설의 맛도 보여줍니다. 복효근 시인은 눈이 내리는 까닭을 “한겨울 추위에 쫄쫄 얼어보지 않은 푸나무들= 제 피워낼 꽃의 형상을 기억하지” 못 할 수도 있어 “꽃의 기억들을 일깨워주기 위해”(「눈이 내리는 까닭」)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설이 내리는 까닭은 무엇 일까요?
자, 폭설 속에서 날것으로 살아나는 건강한 생명력을 만나 한바탕 웃으면 알게 됩니다.

공적인 전언인데 “눈이 좇나게 내려부렸당께!”라는 너무 사적인 표현이, 안방의 것이 마을로, 흰 바탕에 붉은 것이 튀어나오므로서 웃음이 터집니다. 넉넉한 생명적 웃음입니다. 제설작업도 쉬이 해치웁

폭설
-오락번

삼동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 주민 여러분! 삼 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쇼잉!
눈이 좇나게 내려부렸당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자가웃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 워매, 지랄나 부렸쇼잉!
어제 온 눈은 좇도 아닝께 싸게싸게 나오쇼잉!

원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강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모과빛 장지문에는
뒹물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은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혀 있었다
하느님이 行星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 내렸다

좃심 좃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뒹물대야를 내동댕이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
- 주민 여러분! 워매, 귀신 곡하겠당께!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좃돼버렸쇼잉!

니다. 이튿날은 “어제 온 눈은 좇도 아닝께” 정도로 쌓였습니다. 보통 힘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어서 녹초가 되게 일하고 삼겹살과 소주로 풀니다. 안방의 일 또한 해방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좃돼버렸쇼잉!”의 폭설입니다. 하지만 전혀 비극적이지 않게 딱 날것으로서의 생명만이 해학과 더불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생명성이 건강한 봄을 맞이할 겁니다.- 오철수 (시인, 문학평론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흙살림 신문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운영한다. 한의사이면서 고농서를 비롯한 고전을 탐독하고 있는 흙살림동일한의원의 박석준 원장이 농업과 한의학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간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충북 괴산으로 한의원을 옮긴 박원장은 보다 피부에 와닿는 농촌의 삶과 건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농업과 한의학을 시작하면서

흙살림동일한의원을 2017년 6월 12일 개원했으니 괴산에 내려온 지 겨우 6개월 정도 지났다. 나는 충남의 둔포라고 하는 농촌에서 낳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가 쭉 자랐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 잘 모른다. 농사는 더군다나 모른다. 그저 친구가 좋아서 내려왔고 친구를 만나다보니 괴산이 좋아져서 이제는 괴산에서 뼈를 묻기 위해 내려왔다.
괴산에 내려와서 놀라왔던 것은, 내가 목도에서 연 한의원이 마치 야전병원 같다는 것이었다. 병들어 마땅히 쉬어야 할 7,80의 노인들이 치료받고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여름 내내, 그리고 절인 배추가 끝날 때까지 그런 전쟁이 이어졌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정작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의 철학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이였다. 하긴 철학이라는 것이 한가한 사람들의 머리 굴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한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의학의 철학을 고민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한의학과 농업의 철학이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직 어리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본 농업과 한의학의 관계, 더 나아가 농사의 철학에 대해 고민한 것들을 조금씩 풀어보려고 한다. 여러분의 많은 아낌과 비판을 바란다.
글 박석준(흙살림동일한의원의장, 동의과학연구소장)

박석준 흙살림동일한의원의장은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교수와 들꽃피는요양병원 병원장 역임,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한국의철학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고 △몸(소나무)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바오) △허준 - 동의학을 빛낸 큰 별 △동양철학과 한의학(공저) △역서 동의보감(공역)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번역서가 있다.



흙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 액비 제조세트



활인산 10L
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시-3-2-33



빛모음 500ml x 2병
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시-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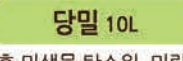
생선아미노산 10L
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시-3-2-39



바이오솜 10L
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시-3-2-34



해초 500ml X 2병
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시-3-2-38



당밀 10L
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



25말(500리터)통 공기 발생기

흙살림 새 비료로 좋은 땅을 만드세요

흙나라발효펠릿 · 흙살림아미노볼 개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도움

‘발효된 원료 사용으로 토양 개량의 속도를 높였다!’

흙살림은 2018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규 기비용 자재 2종을 개발 등록하였다. 토양개량 및 작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사용한 흙나라발효펠릿(공시-3-3-192)과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사용한 흙살림아미노볼(공시-3-3-191)이다.

흙나라발효펠릿은 당도가 매우 높은 대추박(40브릭스 내외)과 발효 유기질인 주정박 그리고 부식산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항균펩타이드를 생산하는 특허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호: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추출물이 추가로 함유되어 토양 내 유해균 증식 억제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N-P-K 함량은 약 3-1.5-1.5 내외로 사용량은 300kg/10a이다. 기존 유박과의 차이점은 발효된 원료를 사용하여 토양 개량에 훨씬 효과적이며, 가스장해 등의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 함량이 높은 대추박이 포함되어 있어 과실의 당도를 높이는 등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 가축 등의 동물에 대한 리신성분의 독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마자박이 첨가되지 않아 안전하다.

흙살림아미노볼은 질소함



흙살림은 새해를 맞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흙나라발효펠릿(위쪽)과 흙살림아미노볼 2종의 신규 기비용 자재를 개발 등록하였다.

량이 높은 자재로 N-P-K 함량은 약 8-3-1 내외이다. 권장 사용량은 150kg/10a으로 사용이 간편한 그레놀 형태로 만들어졌다. 원료로 사용된 대추박(발효콩깻묵)은 예로부터 풍부한 아미노산 함량으로 작물거름에 최고의 원료로 알려져 있으며, 기비로 사용 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살림아미노볼 역시 기능성 특허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호: 바실

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추출물과 부식산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 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이 된다.

두 제품 모두 작물 생육과 토양개량에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가 조합되었으며,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화 된 고급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이행률 흙살림, 114% 달성 1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역시 흙살림이 으뜸.’

흙살림푸드가 2017년 10~11월 서울시친환경급식 친환경 생산자단체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이행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흙살림푸드는 지난 두 달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행률에서 114%를 이루었다. 100%를 초과해 달성한 것은 다른 생산자단체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체해 공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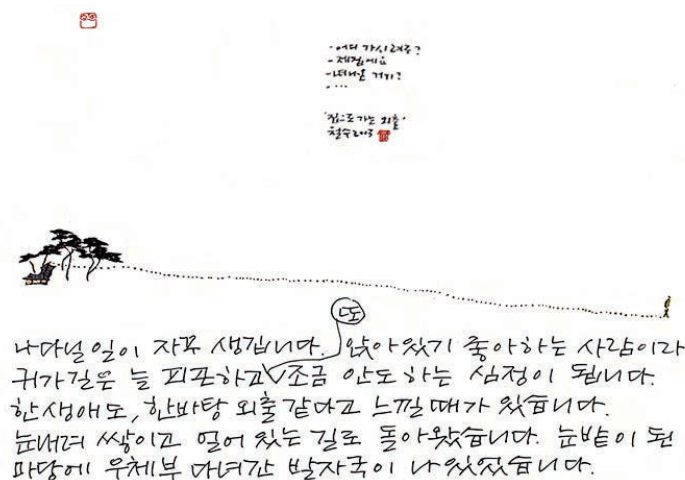
이번 공급이행률은 전체 평균 88%로 지난 1학기 평균 92.5%보다 더 낮았다. 이는

가을 작황 부진과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의 영향 탓이었다. 특히 단감 생산자 인증 취소와 고추·파프리카의 출하지연, 극조생 감귤 작황부진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큰 이유로 작용했다.

흙살림도 전체 산지 작황부진 탓에 백오이 등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탄탄한 생산자 회원 조직 덕분에 오히려 초과 달성을 이룬 것이다. 흙살림은 앞으로도 서울시친환경급식에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집으로 가는 외출



대신택배가 유기농업을 지원합니다.

www.ds3211.co.kr

- 대신티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 대신티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복합운송 주선
- 대신티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 운송
- 대신티정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택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327-6)

TEL. 고객상담실 043)222-4582

FAX. 고객상담실 043)255-3220

영업부 043)256-3211~5

영업부 043)256-3220

대표번호 043)255-3211

대표번호 043)256-3220



휴살림 유기농업 시스템과 함께 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신나는 교육

- 친환경농업 교육
- 인증준비 교육
- 도시농업 운동
- 토종종자 보존운동
- 유기농업 기술 보급



시원한 컨설팅

- 유기농산지 관리
- 경영·기술 컨설팅
- 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체계적인 연구

- 유기농업 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
- 유기농업 관련 연구 수행



정밀한 토양분석

- 토양성분 분석
- 토양 내 유해물질 분석
- 토양미생물 분석
- 시비처방 및 상담



정직한 유통

- 유기농 과일·채소 유통
- 우리집 생활꾸러미
- 유기농 직거래 매장
- 친환경급식



든든한 친환경 농업지원

- 친환경농업 상담
- 제품설계 및 보급
- 도시농업 상담



믿음직한 생산

- 친환경 유기농업용 자재생산
- 유기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자재 유통 파트너 모집

친환경퇴비, 유박, 상토,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액비, 병충해방제제, 차광제, 도시원예자재 취급

문의전화: 043-216-2958

경기, 강원, 충북 담당: 박동윤, 신현식
충남, 경상, 전라 담당: 노봉식, 안정택

전자우편: heukbio@heuksalim.com



휴살림 친환경 충해 관리용 자재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충식이 500ml

- 고농도 식물추출물 함유
- 광범위 살충효과
- 각종 해충, 나방류에 효과적
- 공시-3-5-038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잘들어 500ml

- 천연식물 추출물로 안전성 검증
- 각종 해충에 적용 가능
- 공시-3-5-007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청달래 1L

- 안전한 BT미생물 제제
- 나방 및 나비유충에 효과적
- 공시-3-5-001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친환경 전착제

잘붙어 500ml

- 뛰어난 전착력으로 자재 사용 효율 증진
- 비료 및 약제의 용해도 증진
- 공시-3-4-025